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이뤄진 1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시민들이 탄핵안 가결 직후 환호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 “오월정신의 승리” 광주시민 환호성

금남로 일대 2만여명 운집 승리의 함성 가득  
전남대·조선대 총학 등 5월 재현 거리행진도  
오월단체 “헌정사 또 하나의 역사적 이정표”  
방한용품·어묵 나눔 등 눈길...커피 선결제도

“와” “국민이 이겼다” “민주주의의 승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1980년 계엄군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짓밟혔을 때 이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광  
주시민들의 행진과 목소리가 다시 한 번 거리를  
가득 메웠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145곳이 참여한 ‘윤  
석열 정권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이하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3시30분 동구  
금남로에서 제6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개최  
했다.  
눈이 내린 뒤 다소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일  
찌감치 패딩, 목도리, 장갑 등을 꺼입은 채 오후 2  
시께부터 5·18민주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장갑을 낀 손에는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윤 정  
권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파켓이 들려 있었다.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의 시민들은 전일빌딩  
앞부터 금남로공원까지 300m 가량을 팍 채운 채  
오월 풍물단의 풍물놀이 장단에 맞춰 파켓을 흔  
들고 ‘탄핵’을 외쳤다.  
이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재의결 생중계를 시청  
했으며 여야 국회의원들의 투표 후 우원식 국회  
의장이 ‘탄핵안 가결’을 발표하자 시민들은 일제  
히 환호했다.  
1980년 5월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민주화운  
동에 참여했다는 임재열 (60대)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광주시민으로서 이번 탄핵안 가결  
을 응원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고 가결돼 기쁘  
다”며 “이는 자유·평등·평화의 오월 정신을 지  
키기 위해 다양한 시민이 한목소리를 낸 결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소영 (22·여)씨도 “탄핵안 가결은 민  
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의지이자 승리”  
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18 3단체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  
8 기념재단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세워졌  
다”고 환영했다.  
이어 오월단체들은 “국민의 뜻과 정의의 이름  
으로 윤석열 내란 수괴범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  
결됐다”며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과 그 부부, 잔당들에게  
법적 단죄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  
했다.  
대회 시작 전에는 각 참여단체가 44년 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를 재현하는 거리 대행진도 벌

였다.  
‘5·18민주화운동 발원지’ 전남대학교의 재학  
생 등은 ‘윤석열은 퇴진하라’, ‘불법계엄 규탄한  
다’ 등 손팻말을 들고 대학 정문에서 출발해 금  
남로까지 행진, 집회에 합류했다. 조선대생들도  
학교에서부터 금남로까지 걸어와서 가세했다.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곳곳에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마련한 방한용품, 대회 파켓, 맥거리  
등을 나누는 별도 부스도 설치됐다.  
오월어머니집,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  
시 새마을회, (사)솔잎신탄 등 관계자들은 떡국  
과 주먹밥, 어묵 등 따뜻한 음식과 핫팩을 나눠  
주며 윤 대통령 탄핵 응원을 함께했다.  
일부 시민들은 5·18민주광장 주변 카페, 봉어  
빵 가게 등에 아메리카노, 허브티, 홍차 등 음료  
총 400여개와 간식 80여개를 선결제해두기도 했  
다.  
/주성학 기자

## 강기정 시장 “과거의 광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켰다”

“국민이 승리한 날...더 단단한 민주국가 만들 것”

강기정 광주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  
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과거의 광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켰다”며 “오늘은 국민이  
승리한 날”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국회를 군홧발

로 짓밟고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려 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우리 국민은 용감했고, 장의적  
이었고, 성숙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 시장은 “1980년 5월 광주가 흘린 피와

2016년 평화로운 촛불시위 덕분에 2024년의 대한  
민국은 알록달록 응원봉을 들고 흥겹게 싸울 수  
있었다”며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과거는 현재를 두고, 대한  
민국의 현재는 다시 미래를 도울 것”이라며 “역  
사와 국민의 힘을 믿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

가자”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대한민국은 늘 국민이  
이끄는 나라였다”며 “국민과 함께, 광주시민과  
함께 더 단단한 민주국가를 만들어가겠다”고 약  
속했다.  
앞서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국민의 승리”라고 적었다.

강 시장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 계엄 내란세  
력에 대한 ‘국민의 첫 심판’이자 언 손 호호 불며  
응원봉을 든 국민의 승리”라며 “더 단단한 민주  
주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강 시장은 이날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탄핵안 가결 과정을 지켜봤다. /변진기 기자

## 김영록 지사 “반국가·반헌법·반민주 폭거 멈춰 세웠다”

“국민의 승리...민생 경제 살리기 최우선 모든 대책 조치”

김영록 전남지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도하게  
파괴하려 한 반국가·반헌법·반민주 폭거 행위  
를 멈춰 세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  
된 직후 발표한 도민 담화문을 통해 “살을 에는  
추위에도 쉽 없이 탄핵을 외친 국민들의 승리”  
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김 지사는 “헌법재판소 심판 등 앞으로  
남은 절차 역시, 엄중한 시대적 요구와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 믿는  
다”고 신속한 탄핵 심판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3일 한밤중 내려진 기습적인 비상  
계엄 사태 이후 극도의 혼란과 불안 속에 대한민  
국의 위상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며 “민주주의  
훼손은 물론, 각종 대내외 경제지표도 견잡을 수  
없이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세계를 휩쓴 한류 열풍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더없이 높아진 대  
한민국 국격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참상이 너무

나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불법 비상계엄의 충격  
파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제 우리는 가까스로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를 되살릴 첫 단추를 끼웠  
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하루속히 12월3일 이전  
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리에게는 위기 속에서 기회와  
희망을 찾고, 더 크게 도약했던 경험과 역력이  
있다”며 “IMF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해내  
며 세계를 놀라게 했고 코로나 팬데믹 때에는 가  
장 성공적인 방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

였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시에도  
탄핵 이후 대외관계와 경제지표가 오히려 안정  
을 되찾았다”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저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김 지사는 “도지사로서 도민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대책을 즉시 조치하겠다”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을 두고 예비비를 긴  
급 투입해 어려움을 이겨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  
어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  
히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특별자치도, 무안공항 활성화, SOC 확충 등 전  
남의 역점 현안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 지사는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피어날  
꽃망울을 안고 있다”며 “지금의 어려움 역시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겨내고 ‘국  
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 더 탄탄한  
선진경제 국가’로 머지 않아 새로운 희망을 꽃  
피우게 되리라 믿는다”고 도민과 함께 위기극  
복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재정 기자

